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거룩하게 하라

성경: 마태복음 21장 28~32절

Tag: 기독교 가치관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 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21:25-32)

기독교 가치관 중에 거룩하라, 또는 거룩하게 하라는 가치관이 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 명령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 ‘너희는 (기쁨을 부어;행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나 서술형으로 사용된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께 적용되어 사용되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그렇다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부분 물리적인 변화 보다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소유주의 변화, 목적의 변화, 사용의 변화, 영성의 변화, 생사의 변화, 성숙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주권의 변화(나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신앙고백의 변화, 나의 의지의 변화-순종, 나의 목적의 변화, 나의 삶의 질의 변화를 의미한다.

쉬운 예로 거룩하다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 이다.

기독교적 의미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이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는 뜻.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라는 뜻.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삼으셨다는 뜻.

시간, 돈->현금, 장소,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함.

그렇다면 현금만 거룩한 돈이고 나머지는?

1. 하나님께서 나머지 돈을 거룩하게 하신다.
2.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고백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드림.
3. 나머지 돈도 하나님의 것이니만큼,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함.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데,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품격을 손상시키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만약 그렇게 하면 현금 자체도 거룩성을 상실케 됨.)

이처럼 거룩해진 돈은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는데 사용될 것임.

-이런 원리가 모든 영역에 파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은 심지어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거룩해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어떻게 창녀가 거룩해 지는가? 우리가 생각할 경우 가장 거룩해지기 어려운 사람이 창녀같아 보이는데, 만약 그 사람 속에 거룩해지려

는 의도와 열정이 살아 있다면 그녀는 마침내 거룩해질 수 있다.

정상적인 여자치고 창녀로 사는 것을 원하는 여자는 없다. 그가 유린 당하고, 팔리고, 속임을 당하고, 무지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녀를 돌보아 주지 않고, 마침내는 자신 스스로가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창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창녀의 삶처럼 비참하고 비굴하고 수치스럽고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삶이 어디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녀를 특별히 돕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녀가 창녀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정리하고(술이나 담배로부터), 삶의 습관을 정리하고(소비성 삶), 정상적인 삶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그녀가 창녀의 삶에서 해방될 날이 올 것이다.

-물론 개개인마다 이런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각각 상이하게 작동될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도를 걷게 되면 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에 해당한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3:2) -세례요한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 -예수님이 오셨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천국과 복음을 예비하며 오실 메시야를 사모하고 있었다.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지목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세례요한의 사명.

말씀의 발단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청소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에 대한 권위를 묻게 되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되 물으신다. 왜냐면 이들이 세례요한의 권위를 인정만 했더라면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판단으로 모른다고 대답한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회피성 답변이다. 회피와 핑계가 시간을 벌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망하게 된다. 한번 회피할 때마다 쇠고랑을 하나씩 차는 꼴이 된다.

그런데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권과 지위와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어서 회피한다. (성전과 성물과, 제물과 헌금이 자기들의 소유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데도)

반면에 창녀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수치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회개의 길로 나아왔다.

이점이 거룩한 척은 하지만, 결코 거룩하지 않는 집단과, 자타 공인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집단의 극명한 대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라 했으나 가지 않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는 비록 처음에는 불순종 하였으나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하였다.

-세리와 창녀가 바로 둘째 아들과 같다. 이들은 회개하고 순종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첫째 아들과 같다. 가서 일하겠다고 했으나 정작은 가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도 순종하지 않았다.

왜일까? 세리와 창녀는 세례요한의 말을 믿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세례요한의 말을 믿었다.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가 외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믿었다.

그러나 스스로 거룩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신의 죄를 회피한 대제사장무리들은 세례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다.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나 자신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닌, 내 주변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성경: 마태복음 21장 25~27절

Tag: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하리라

-권위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함.

-실제로 이들이 성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음.

-어느날 갑툭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자 놀라서 묻게 됨.

-이들은 성전의 이권과 관계된 자들.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도데체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가? 당신에게 권위가 있는가? (당연히 예수님께 권위가 있음. 권위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리권을 뜻함)

이것은 질서를 의미함. 나중에 권위를 가진자가 먼저 권위를 받은자를 대체함. 권위자의 힘을 권세라 함. (권세란 권위자의 지혜, 의도, 방식, 자본을 통한 실행사를 권세라 함. 권세의 방식과 한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음. 이 법을 어기는 것도 악한 것이 됨. 경우에 따라서 권세를 부리지 않는 것도 악한 것이 될 수 있음.)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있는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대라.

-이들은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이다. 이들은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노하우가 있었다. 카르텔이 있었고, 짜고 칠 줄 알았다.

-권위에는 신성이 있음. 권위자는 하나님께 의무가 있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함.

-그 권위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님. 그는 그 권위로 그 권위의 대상자를 돌보며 보살피며 풍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권위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음.

-왕권 신수설.

-그러나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가 됨.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폐위되어야 함. 왕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임.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심.

-그러므로 권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님. 권위자가 문제가 아님. 권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할 때 문제가 됨.

-단순히 권위에 이념 프레임을 씌울 때 사람들이 헤갈리게 됨.

영광.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

자녀는 부모의 영광

권위의 올바른 사용은 그 권위의 근거가 되시는 분의 영광을 드러냄.

즉 남성과 여성은 한 몸이며, 권위의 올바른 사용은 한 몸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이 비로소 여성의 역할이 됨.

이 영적인 질서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악한 프레임을 씌워서 남과 여를 적대자로 만들어버림.

남자도 인간이 아니고, 여자도 인간이 아니며, 남녀가 비로소 인간임. 이것이 성경적 인간개념임.

왜 여성이 착취를 당하는가? 악한 남성이 남녀를 착취하고, 악한 여성이 남녀를 착취함. 악한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님.